

hey!

TRAVEL

WORLD MADE BY TRAVELER

MEDIA KIT 2023



최신 여행 트렌드를 담아낼 새로운 미디어 <hey! TRAVEL>

New Media to Capture the Latest Travel & Life Trends

Travel Curator 여행 큐레이션 미디어

여행 전문가와 로컬이 큐레이션한
고품격 여행&라이프스타일 플랫폼

A Travel Content Platform Curated by Locals and Travel Experts

Inspiring travel through personal
inclusive storytelling

hey!
TRAVEL



About <hey! TRAVEL>

Travel & Local Curation

여행 전문가와 현지 로컬에 의해
'큐레이션'된 여행과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다루는 매거진

A magazine covering travel and global
lifestyle trends "curated" by
travel experts and locals on the ground.



Deep Dive Insight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여행 미디어 시장에서
정통을 지향하며
변화된 여행&라이프 콘텐츠를
깊이있게 다루는 미디어

Media that seeks authenticity
and dives deep into the transformed
world of travel & life content
in a market still experiencing
a post-COVID slump.



The Power of Legacy & New Media, in One

여행 미디어 경력 5~15년 이상의
전문 에디터와 필진을 비롯,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선별한 신뢰감 높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독자들에게 제공

Providing readers with trusted information
and insights curated by experts in each field,
including professional editors
and writers with 5~15 years of
travel media experience.



<hey! TRAVEL> Contents

Special Destination

매 호 여행&라이프스타일의
최신 트렌드를 주제로
한 지역(도시, 나라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심층 기획 기사입니다.

Each issue's in-depth feature article
focusing on the latest trends in travel & lifestyle
in a specific city, country, or region.





웰니스 여행의 정치는 다음과 같다. 몸과 마음에 밸런스를 찾고, 건강을 되찾아 활력을 얻는 여정. 방콕은 그런 시간이 간절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영민하게 내어준다. '환대'를 정체성으로 삼은 도시에서 몸과 마음, 영혼의 에너지를 높이는 삶의 방식을 찾았다.

WRITTEN BY KYU JIN
PHOTOGRAPHY BY JEON JAEHO

SHIMBIBEYTCORPORATION/PROPERTY OF THAIWANG SOCIAL



PLACE
에너지를 채우는 공간들
ENERGIZING SPACES

목적과 비전, 영혼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공간들이 즐비한 방콕의 웰니스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PEOPLE
웰니스를 만드는 사람들
WELLNESS CREATORS

왜인지 열심히 애용하지 않더라도 결국 사람들이 이들을 찾는다. 이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들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다.

가이드를 만들 때에 따라야
마디본 노아니스

가이드를 만들 때에 따라야 마디본 노아니스는 웰니스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들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다.



홍무스 헤드

홍무스 헤드는 웰니스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들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다.

안타당 당

안타당 당은 웰니스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들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다.

People

자기만의 '삶의 방식'으로
영감을 주는 예술가, 여행가,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철학을 들어봅니다.

A glimpse into the thoughts and lives of
inspiring artists, travelers, and opinion leaders
with life philosophies and approaches
that are uniquely their own.





지금 이 순간에도 글 쓰면서 놀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는 소설가 최민석이 꼽은 디지털 노매드 시티들

일하면서 즐기 좋은 도시

THIS IS THE BEST PLACE TO LIVE AND WORK ABROAD

WRITER BY CHORMINSEOK
ILLUSTRATION BY JOONSHUREM

14년째 소설가로 지내고 있다. 딱한 이유는 간단했다. 종이의 편만 있으면 될 거라 여긴 것이다. 한때 알파와 오메가라 여겼던 종이와 펜은 애물단지였다. 여자의 종이와 펜도. 컴퓨터로 옮겨 적어야 할은 물론이거니와, 근사한 노트와 만년필은 최세만 충족시켜줄 뿐이었다. 정작 창작에 필요한 것은 가벼운 노트북이었고, 착주 걸방을 여행할 의지와 오직편을 받기 위한 알뜰한 눈이외의 책상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르시알을 창작했었다. 내게는 이 모든 게 없었다. 우선, 노트북을 샀고, 책상도 샀고, 의자도 샀고, 사는 길에 위안서 출판할 소피도 샀다. 그럼에도 글은 써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률 분석한 결과, 알뜰한 공간만 떠나야 한다고 깨달았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 나오지 않거니와, 지난 14년째 세계 곳곳을 떠돌고, 도시를 깨달았다. 내와 사는 환경에서 글이 가장 잘 써진다는 것을. 이 글을 쓰는 달인은 디지털 노매드인지 모른다. 왕이, 깊은 원의 분노를 흘리며, '이봐, 소설가 알만. 작작 좀 쉬라고'라며 외침처럼 모른다. 그렇기에, 비록 마르쿠 팔랑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았다. 그것은 잔포르에 그만 종 하서지, 디지털 노매드가 작업도 하고, 즐길 수도 있는 해외 지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철저한 나의 주관적 경험에 의한 것이니, 이해해주시길.

RISE & SHINE

세상의 모든 아침



가파른 계곡, 맑은 강, 아름다운 산악 풍경이 함께 자리잡고 있는 땅이 있는(상단)의 사진 촬영을 해준(중단) 도시, 하이힐을 신고 산책하는(하단)의 모습은 여행 사진 갤러리(중단)에서 제공했다.



멜버른 브런치 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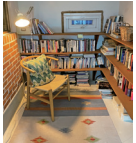
HEAVENLY BRUNCHES IN MELBOURNE

다크 스타일의 인테리어, 현대적인 가구, 편안한 분위기. 멜버른의 브런치 클럽은 도시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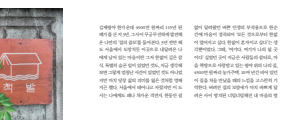
멜버른의 브런치 클럽은 도시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담아냈다. (상단) 멜버른의 브런치 클럽은 도시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담아냈다. (중단) 멜버른의 브런치 클럽은 도시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담아냈다. (하단) 멜버른의 브런치 클럽은 도시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담아냈다.

도시가 점점 커져갈수록, 집을 그대 부양해주는 한 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하지만, 도시의 삶은 편리한 것만은 아니다. 좁은 공간, 높은 임대료, 복잡한 생활 리듬, 그리고 도시의 공기. 이 모든 것이 집을 그대 부양해주는 한 채로 살고 싶은 마음을 더하게 만든다.



THE HOUSE THAT CHANGED ME

나를 만든 집의 삶



이 집은 나를 그대 부양해주는 한 채로 살고 싶은 마음을 더하게 만든다. (상단) 이 집은 나를 그대 부양해주는 한 채로 살고 싶은 마음을 더하게 만든다. (중단) 이 집은 나를 그대 부양해주는 한 채로 살고 싶은 마음을 더하게 만든다. (하단) 이 집은 나를 그대 부양해주는 한 채로 살고 싶은 마음을 더하게 만든다.



이 집은 나를 그대 부양해주는 한 채로 살고 싶은 마음을 더하게 만든다. (상단) 이 집은 나를 그대 부양해주는 한 채로 살고 싶은 마음을 더하게 만든다. (중단) 이 집은 나를 그대 부양해주는 한 채로 살고 싶은 마음을 더하게 만든다. (하단) 이 집은 나를 그대 부양해주는 한 채로 살고 싶은 마음을 더하게 만든다.

Life

한국의 최신 여행 트렌드,
라이프스타일을 여행, 공간,
서비스, 제품 등의
카테고리 안에서 짚어줍니다.

Korea's latest travel and lifestyle trends
highlighted through trips, spaces,
services, products, and more.



근교의 정원



세계의 정원이 된 다랑이는, 섬이정원

고산성과 정동산이 에워싼, 남해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이국적인 풍경의 정원이 있다. 다랑이...



주소 경남 남해군 남면남도 1334-130
휴먼가든 seomgarden.com



EULJIRO DAY & NIGHT. A vibrant street scene at night with colorful lights and buildings. Text describes the area as a place where day and night are equally lively.

인도정원 #. A woman sitting on a bench in a garden. Text describes the garden's features and location. Includes a small photo of a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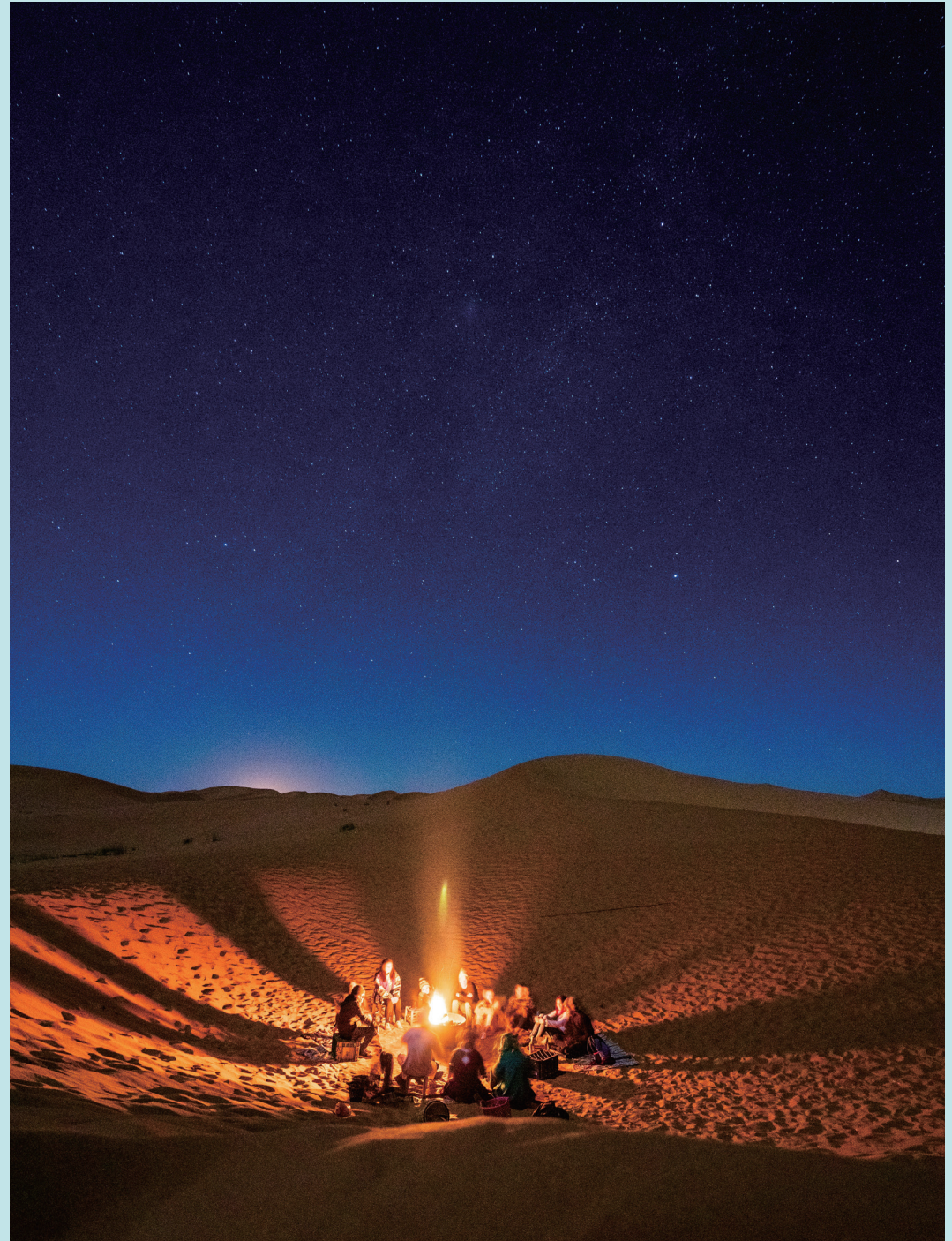
남해의 맛. A collection of images showing food, a cafe interior, and a building. Text describes the local cuisine and dining options.

WONDERFUL WORKCATIONS. A promotional page for workcation packages. It features images of a beach, a room, and a person. Text lists various packages and their benefits.

World

야생의 대자연부터
지구 반대편 소도시에 사는 이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까지,
세계 곳곳의 '현재'를
로컬의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From the wilds of the great outdoors
to ordinary small-town life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a local's
perspective on the "now" of different spots
across the globe.





페루, 우아라스
안데스의 품에 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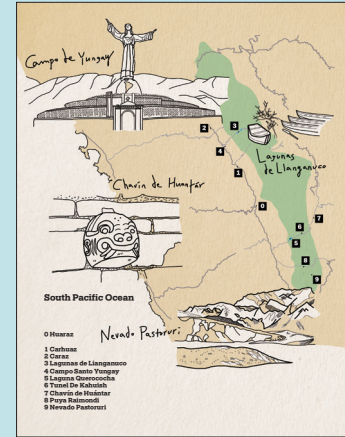
HUARAZ AND BEYOND, EXPERIENCING THE REAL PERU

차다란 안락스산맥의 수백여 권 세계 여행자의 열정을 들끓게 하는 페루의 우아라스. 그 대자연 앞에 숙절없이 반경 쉼인 소원을 빌었다. 자연을 업신여긴 지난날을 돌아보았노라.

제작: KUNO MITSUNO
촬영: CLAUDIO PEREZ
편집: FELIX



1. 산맥을 오르다...
2. 안락스산맥의 수백여 권...
3. 차다란 안락스산맥의 수백여 권...
4. 차다란 안락스산맥의 수백여 권...



PLAN YOUR ADVENTURE

이 여행은 페루의 안데스 산맥을 탐험하는 데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리며, 여름에는 더운 날씨와 건조한 기후가 특징입니다. 이 여행은 페루의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다양한 문화 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이곳의 열정과 열정이 담긴 이야기는...
여행의 열정과 열정이 담긴 이야기는...
여행의 열정과 열정이 담긴 이야기는...



지금 베를린, 도쿄, 발리, 런던에서 찾은 최상속식

TRAVEL LIKE A LOCAL, AN INSIDER'S CITY GUIDE

BERLIN TOKYO BALI LONDON

hey!
BERLIN

3 PARKS THAT BERLINERS LOVE

TEMPelhoer FELD
Volkspark Friedrichshagen
Hörsingpark



hey!
LONDON

THE BAKERIES LONDONERS LINE UP FOR

FORNITUDE
SOURDOUGH SOPHIA
ES BAKESHOP





<hey! TRAVEL> Platform

로컬&여행자가 전하는 그 도시의 최신 트렌드와 인사이트

The latest city trends and insights from real locals and travelers



1

<Hey! TRAVEL> 매거진

Magazine

소장 가치가 있는 여행 단행본,
1년 4회 계간 발행 (10월 1일 발간)

Collectible travel publication, published four times
a year (launching October 1st)



2

<Hey! TRAVEL> 디지털 플랫폼

Digital Platforms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
매일 발행 (11월 중 오픈 예정)

Daily updates on Instagram, Youtube, and
Naver Blogs (starting October 31st)



3

<Hey! TRAVEL>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맞춤 정보를 원하는 독자를 위한
주 1회 뉴스레터 발행 (2024년 1월 오픈 예정)

Publication of a weekly newsletter for readers
who prefer more customized information
(launching in November)

Specification

Circulation

2023년 10월 창간호

October 2023, First Issue

연간 6회 발행(격월간), 매호 10000부 발행

6 Issues Per Year, 10000 Copies Per Issue

Target

여행과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 및 삶의 방식에 관심이 깊은 20-50 남녀

Men and women between age 20 and 50 with a strong interest in travel and the latest lifestyle trends

Distribution

전국 주요 서점 및 카페, 공유 오피스 라운지 & 정기구독

Major bookstores and cafes nationwide, co-working lounges & subscriptions

Rate

Magazine advertorial Rate

기사 협업 400만원부터

온.오프라인 프로젝트 협업 별도 문의

셀레브리티 프로젝트 협업 별도 문의

Magazine ad. Rate

표2 + 내지 1P 스프레드	400만원
내지 스프레드	350만원
내지 싱글	250만원
표3	300만원
표4	500만원

bandicom
Editorial Design Group

<http://www.bandicom.com>